

예수부활대축일

제1독서: 사도 10,34-37-43

제2독서: 골로 3,1-4

복음: 요한 20,1-9

# 순정이

“누군가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셨습니다.”  
(요한 20,2)

## 축! 부활



### 부활의 계절에

피어나는 꽃송이가 부활을 속삭인다.  
 푸른물에 노니는 물고기도  
 부활을 그린다.  
 땅속에서 쉬는 순교자의 황골도  
 부활을 기뻐한다.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온 누리의 빛과  
 희망은 죽지 않는다.

부활하신 예수님  
 신비의 봉우리,  
 사랑의 승리,  
 기쁨의 으뜸.

예수님 부활하심의 오묘한 뜻으로  
 생명 있는 모든 것이  
 시시각각 부활한다.

성찬성

여 명

# 집과 학교를 싫어하는 아이들

## □ 집을 나가는 아이들

언젠가 텔레비전 보도는 교실에 앉아서 공부에 전념해야 할 중고등학생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세대를 고발한 적이 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아이들 중의 어떤 아이는 정식으로 부모의 동의를 얻어냈다고 한다. 미성년인 딸아이를 다방에 취업하도록 허락해 줄 수 밖에 없었던 부모의 처지는 얼마나 딱했을까!

예전에는 아이들이 아무 때나 집을 나가지는 않았다. 개학하고 며칠은 학교에 잘 다니다가 아카시, 아꽃이 필 무렵이면 집을 나가곤 했다. 그런데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집을 나간다. 어떤 아이들은 가출을 월중행사쯤으로 알아서인지 걸핏하면 집을 나간다. 그러다가 또 아무 때고 불쑥 돌아오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던 부모들이 그쯤되면 놀라지도 않는다.

입학식을 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둘이 시내에서 맥없이 돌아다니다가 고마운 분의 눈에 띄어 학교에 연락이 왔다. 왜 그랬느냐는 물음에 울음 반 코맹맹이 소리로 웅얼거리니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속사정을 글로 적어보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써온 걸 보니 아이들더러만 나쁘다고 말할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다. 한 아이는 아버지가 일찍 집을 나갔고 또 한 아이는 작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둘 다 어머니가 새로 결혼을 했다고 한다. 어린 소견으로는 어머니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새 아버지도 맘에 들지 않으니 살 맛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돌아다녔다고 한다. 이런 처지라면 철모르는 아이들만 나무랄 수야 없지 않은가!

## □ 청주 양업고 설립 난항

작년과 재작년 이태 동안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이 무려 9만9천2백87명이나 된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숫자다. 이에 교육부는 이들의 구제를 위해서 희망자들의 복교를 허용했다. 그런데도 실제로 복교 절차를 마친 학생은 많지 않다고 한다.

중도 탈락자의 구제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또 있다. 그건 별 탈 없이 학교생활을

## 한 상 갑(바오로)

하던 학생들의 보호차원에서 그러하다. 아직은 저항력이 약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기에 중도 탈락자의 복교에 앞서서 탈락자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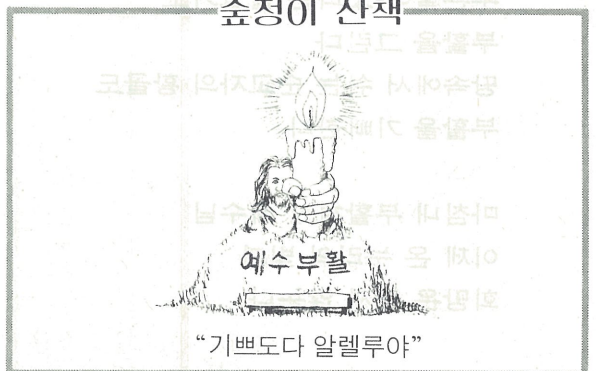
대안학교는 중도 탈락자를 별도로 수용하여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까지를 제공하는 학교다. 중도 탈락자들의 복교에 대한 호응도가 낮고, 일반학교로의 복귀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점으로 보아서 대안학교의 운영은 더욱 바람직한 일이다.

매스컴에 가끔 소개되어 우리에게 조금 알려진 대안학교로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전남의 〈영신성지학교〉가 있다. 그 외에도 경기도 안산의 〈들꽃피는 학교〉, 충남 홍성의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 등이 대안학교는 초창기에는 하나의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상당한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퇴학생과 자퇴생을 선도하기 위해 청주교구에서 세우고자 하는 〈양업고등학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설립 예정지 주민들의 몰이해와 지역이기주의, 교육환경의 악화로 학교부지 선정 등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입으로만 청소년문제를 말하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만 하다. 주여, 용서하소서.

※참고 : 교육소식 창간호(1997. 3. 10. 교육부 발행) 평화신문(1997. 3. 9. 19면)

## 숲정이 산책



## 매일의 삶이 부활이지요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협이나 칼입니까?...”

경칩을 하루 앞둔 초저녁 무렵, 대지에 감도는 훈기를 느끼며 찾아간 심상천(스테파노 46세, 이후동 성당)씨의 집,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전주교구 설정 60주년 정신운동에 따른 사순절 기도지향과 애덕실천표에 맞추어 바오로 서간을 읽고 있었다.

“매일 기도의 좋은 점이요? 글썄요. 눈에 띄는 어떤 변화보다는 작은 마음들이 합쳐져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기도를 바침으로써 가정이 변화된 점을 묻는 말에 그는 간단하게 답했다. 그러나 교구의 지침에 따라 매일 성서 통독도 열심히 하는 심상천씨 가정에 내려진 주님의 축복은 그것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 뒤를 이어 성서를 읽는 장남 인희(다니엘, 중3)와 차남 현성(안토니오, 중2)이도 가족이 함께하는 성서읽기와 기도를 좋아한다. 처음에는 기도하기가 힘들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성서라는 생각에 함께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재미있는 일과가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의 아내 정영숙(아네스)씨의 재치있는 노력이 함께 했다.

“처음 성서 읽기를 시작할 때는 애들이 어려워했어. 그래서 유익한 말씀이 많이 있는 잠언서를 먼저 읽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금새 재미를 붙이더군요.”

착실한 전업주부인 그는 가정일이 많은데도 본당의 첫영성체 가정 교리교사로서 2년동안 계속 봉사하고 있다.

그의 가족들은 학교 기숙사에 가 있는 딸 은정(요

세피나, 백화여고1)이를 제외하고 매일 새벽미사에 참여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심상천씨는 2년전 서울 양재동 성당에서 이후동 성당으로 교적을 옮긴 후부터 새벽미사를 봉헌하기 시작했다. 그때에는 대부분의 성당이 그렇듯이 새벽미사 참석자는 주로 노인들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다니는 성당을 젊은 성당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는 가족 모두 새벽미사를 나가기 시작했다. 일찍 일어나기가 힘들어 피를 부리던 인희와 현성이 새벽잠이 없어질때쯤 되자 자녀들과 함께 새벽미사에 나오는 가족들의 수가 늘기 시작했다.

심상천씨의 선교는 이런 식이다. 이웃에게나 자녀에게나 자신의 믿음을 설교로 강요하기 보다는 스스로 실천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참으로 사람다운 삶은 하느님을 중심축으로 하는 삶’임을 보여 주는 것이 참된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서울에서 공장을 경영하고 있는 매체에 가서 서울에 올라와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의가 들어왔었죠.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전에 해본 일이라 경험도 있고 장래성과 수익성도 있는 괜찮은 일이더군요. 당연히 손위 처남인 제가 도와 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지요. 그러나 사업을 하다보면 양심을 거스르는 일도 생기고 주일도 지킬 수 없을 것 같기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매제에게 말했죠. 사람이 자기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요.”

이렇게 심상천씨 삶의 방향이 바뀐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1984년, 세상살이에 휩쓸려 삶의 가치도 불분명하게 살아가던 때, 심상천씨는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버린 아내 정영숙씨를 찾아 나섰다가 운전하던 차가 다리밋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겨우 목숨을 건진 심상천씨는 퇴원 후 곧바로 성당을 찾아가 신앙에 귀의했다. 그 후로는 신앙인의 양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의심이 없게 되었다.

“우린 정말 하느님 아니면 이렇게 함께 모여 살 수 없었어요.”라는 정영숙씨의 말 속에는 예전의 삶과 다른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 드릴 수 있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새롭게 주시니 그것이 은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새로이 태어난 기쁨을 아는 심상천씨의 가족은 날마다 부활을 살고 있었다.

취재 / 편집부



1997년 부활 메시지

# 부활과

친애하는 교향자매 여러분!  
 지난 2천년에 걸쳐 우리를 앞서 걸어가신 신앙 선조들의 전통을 따라 우리도 이 말로써 부활의 큰 기쁨을 외치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속으로 우리를 들게하는 이 신비보다 더 큰 기쁨은 다시 없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떠받쳐주는 기반이기에 바오로 사도와 함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한 것도 헛된 것이요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1고린 15,14).

1. 그런데 요즈음에는 부활과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전혀 다른 어떤 믿음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환생 증후군 (還生 症候群)”이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본래 인도에서 발생하여 힌두교와 불교를 통해 체계화되었지만 서양에 건너가 어떤 변용과정을 거쳐서 서구 여러 나라에 퍼지고 다시 동양으로까지 역수입되어 우리 나라에서도 상당한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번의 생애가 유일한 것은 아니어서 전에도 나는 어떤 삶인가를 살았고, 이번의 삶이 끝나면 다음에 다른 삶이 또 계속된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서양 세계에서 약간 변용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령 이런 사상이 발원한 동양에서는 본래 사람이 환생의 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불행으로 생각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는데 비해서, 서양에서는 사람들이 그 바퀴에 올라타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게 될만큼 그것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을 그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믿음이 요즈음 사람들 사이에 새롭게 퍼지고 있는 현상을 보며, 우선 긍정적

인 측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서툴게 세상을 살다가 그대로 죽으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허무하고, 그래서 안될 것 같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즈음 사람들이 죽음 그 너머에 대해 어떤 대답을 설정할 필요를 느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볼 때 의미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물질주의적 사조가 밀물처럼 밀려와도 관 뚜껑이 닫히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는 생각을 사람들은 견딜 수 없고, 죽음 이후의 문제를 정면으로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일상적인 삶을 제대로 영위할 수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네 삶이 너무나 서툴고 실수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연습 무대가 없이 직접 본 무대부터 시작해서 한 번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생각을 전제로 하는 듯한 부활신앙 보다는 수많은 생존의 기회를 상징하는 환생설이 훨씬 인간적이고 너그럽고 숨통을 틔워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극이나 음악 연주에서도 본무대에 서기 전에 연습 시간이 충분히 주어져서 수많은 실수를 거쳐 조금씩 완성해 나가다가, 마침내 그만하면 되었다 싶을 때 청중앞에 서듯이, 인생에도 연습의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좀더 자유롭고 여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환생설은 부활신앙을 보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 등 부활 신앙을 가졌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들과 불교 신자들이 각자의 신앙체계와는 별 상관 없이 너댓명 중의 하나 꼴로 환생설을 믿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생설은 부활 신앙과는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언뜻 생각하기에는 여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드레스마춤 대여  
 최윤경(유리안나)  
**미용실·미용학원**  
 학생수시 모집  
 기초반·메이크업반·연구반  
 이리시 중앙동3가 7-1  
 ☎ 841 - 2495, 855 - 8653

**영창피아노 전주 총 전시장**  
**A/S 전문점**

- 18개월 무이자 판매
- 중고 피아노 교환 우대
- 신자분 특별우대

전상진(베드로) 유명숙(요안나)  
 구 서중로타리 동서증권 맞은편  
 ☎ 252-01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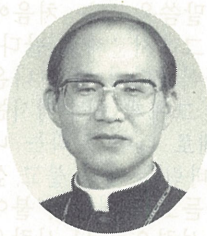
**L G 에 어 콘**

- 97년 신제품 에어컨 예약중!
- 설치는 지금, 대금은 5월부터

(주) 삼화공조  
 ☎ (0652) 241 - 2000

**연세가정의학과 의원**  
 (통증클리닉·물리치료)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원장 : 전문의 이 장훈(요셉)  
 동서학동 교대 옆 무궁화주유소 사거리  
 ☎ 232 - 3535~6

# 환생



이병호 주교 / 천주교 전주교구장

러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든 환생설이 더 너그럽고 인간의 실제 처지에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는 그 사상 체계속에 인과응보라는 법칙이 냉엄하게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철저히 스스로 기워잡고, 그렇게 해서 누구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의 삶에 잘못이 많았으면 다음의 삶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처지에서 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삶의 기회가 주어져도, 반드시 더 나은 처지를 향해 올라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옆으로 가고 때로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구원에는 도달하지 못한채 그 이전 단계에서 한없이 떠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부활신앙은 대단히 대조적인 입장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은 무한한 자비와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손길이 뻗쳐와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믿음 속에서는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자신의 허리를 휘어잡고 거기서 끄집어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타고난 이기심과 잘못된 경향 그리고 그 때문에 빠져들게 된 죄악으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장 분명한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밖에서”

다른 어떤이가 손을 뻗쳐 꺼내 줄 때에만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이 세상이라는 구렁에까지 내려 보내시고, 그분을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심으로써,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전혀 새로운 생명 속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확실히 해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2. 그러면 다음의 문제로 넘어가서, 부활 신앙속에는 우리의 삶이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는 믿음이 깃들어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인간의 유약성과 쉽게 악으로 기울어지곤 하는 성향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단 한번의 삶으로 결정되고 만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한 번의 삶으로 그 엄청난 일이 결정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인간의 삶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뚱이를 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땅에 묻힐 때까지 사람은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가운데 하나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서서히 그 진리를 깨달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 요십이 (1233) 김병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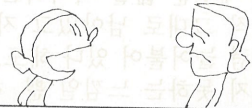
제 탓이요 제 탓이로소이대이



왜 그러세요? 나라가 뒤죽박죽 된것이...



그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이지요 아냐



정치를 할줄 모르는 사람들을 뽑아준 내가...



### 여 사무원 구함

1. 자격: 영세한지 3년이상, 고졸이상, PC워드가능자
2. 제출서류: 이력서, 세례증명서 각 1통
3. 기간: 4월 13일까지
4. 접수처: 노송동 성당 사무실
5. 연락처: 82-9661 노송동 천주교회

활동중심의 통합교육 작은꿈이 커가는

### 미래어린이집

서신2지구 마천교 옆

홍 중 득(바오로) 이 경 신(데레사)

☎ 71 - 5330~1

### 효자이비인후과의원

(레이저·내시경수술)

가톨릭공계조합 지정병원

원장 김 우 태

육 인 희(세레나)

남전주 전화국 건너편

☎ 223-7112

### 서울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검진센터)

전신C-T촬영·일반X-선 촬영  
골다공증 측정·전신초음파 촬영  
유방촬영·성인병검진·자동차적성검사

박 인 숙(아나다시아)

구 금암분수대 로타리

☎ 78-1312~3

### 문 병 원

직장여성을 위한 공휴일이 없는 병원  
(평일 후9시,토요일 후5시,공휴일 후1시)

이 사 장 문지식(레나도)

병 원 장

상무이사 기순중(안젤라)

마취과장 ☎ 82 - 8833 ~6, 84 - 2918

### 푸른광고기획

·천주교회 행사 기념품·개업, 회감, 모임 기념품·각종 행사 사은품·각종 양식 및 봉투 인쇄·청첩장, 명함 등·상패, 명패

정의평(라우렌시오)

서영란(마 리 아)

☎ (0652) 225-8147

나라를 볼 수 없다”(요한 3,3). 어느날 밤 예수님을 찾아가 그분으로부터 들은 이 말씀을 그는 처음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난다’는 말을 듣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다는 뜻으로만 생각하고 있던 그에게 예수께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에게 생각하지 말라.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여러번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례성사를 받을 때, 견진성사를 받을 때, 또 죄를 지은 후 마음을 고쳐 회개할 때, 우리는 번번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 왔다”(루가15,24).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이전까지의 삶에 완전히 죽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억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지나간 잘못의 기억이 상처처럼 늘어붙어 있다 해도, 그것은 내 쪽에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느낌일 뿐, 하느님께서 모두 잊으셨습니다. “보아라, 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지난 일은 기억에서 사라져 생각나지도 아니하리라”(이사65,17).

따라서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더 이상 믿는 이들의 마음에 남아 있어서는 안됩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삼십 팔 년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마르5,21~43). 한 평생을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남을 위협해서 뺏은 돈으로 먹고 살던 강도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네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루가 23, 43). 이들은 모두 무덤처럼 어둡고 숨막히는 구렁으로부터 빠져나와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죽었던 라자로를 살려 무덤에서 일어나오게 하심으로써(요한11,38~44) 예수께서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람을 끄집어내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실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신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 속으로 부활할 것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이하생략-

### 사목 단상

## 사랑의 등지



김 훈 신부 / 중앙성당 보좌

서로 서로 다정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비둘기 같다고 한다. 언젠가 나는 내가 잘 아는 어떤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짓는다지만, 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집에는 장미꽃은 없어도 종류가 다른 이꽃 저꽃이 날마다 피는 그런 집이었다.

하루는 아내 비둘기가 남편 비둘기에게 자기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해보았단다. 말이 별로 없는 남편 비둘기의 밥상에 소금을 잔뜩 넣은 된장국을 올려놓고 ‘이 된장국 맛있어요?’하고 물어보았단다. 어쨌다나. 그런데 돌부처 중간쯤되는 남편비둘기는 입에 침도 안바르고 ‘응 맛있어’했다. 이 말을 듣고 아내 비둘기는 속으로 ‘아이고, 맛있기는 뭐가 맛있어, 소금을 얼마나 넣었는데!’했다고.

우리는 앉아서 서로 빠진 배꼽을 찾느라고 방파닥을 두리번 거릴 정도로 웃었다. 나는 본당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사랑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사랑을 필요로 하나보다’하는 생각을 했다. 누구나 상대방이 자기에게 자기의 일과 말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랄 것이다.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라면 더욱더.

짧은 본당 생활을 하면서 이렇듯 한 가정만이 아니라, 서로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세상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본당을 사랑의 등지로 만들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보았다. 그 비둘기같은 마음씨를 가진 이들은 날마다 기도와 이웃사랑의 유대로 예쁜 꽃넝쿨을 엮어가고 있다.

여성패션

### 앙 페 르

이 현 정(카타리나)

전주백화점 ↔ 도청 민원실

(에스콰이어 옆)

☎ 83 - 4235

### 신일클래스피아노학원

- 아바테우스클래스음악교육(유치부·초·중등부)
- 예중·고·유대 입시반, 편입반
- 피아노, 현, 작곡, 입시상담

음악학 석사 김 태 민(바오로)  
정 수 영(비올라)  
현재) 전주대·예고·기독음대 출강중  
삼천동 신일강변APT 상가1동  
☎ 226 - 8585

### 임혜연 웨딩샵

드레스, 예복 대여전문점

메이크업, 신부화장

임 혜 연(엘리스벳)

전풍백화점 앞 에스쁘리 2층

☎ 85 - 5041

### (유)국민렌트카

각종 차량 대여(보유대수 124대)

- 본사영업부 : 242 - 7200~1
  - 군산영업소 : 467 - 6578
  - 정읍영업소 : 536 - 3200~1
  - 김제영업소 : 45 - 3232~3
- 익산, 남원영업소 모집중  
상담전화 242 - 4442

대표이사 : 박오안(요한)

# 교구소식

### ❖레지오 3차 영성피정

·때 : 4월 1일(화)  
·장소 : 천호 피정의 집

### ❖성모기사회 모임

·때 : 4월 5일(토) 오전 10시  
·장소 : 효자동 성당

### ❖푸른군대 월례피정

·때 : 4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 덕진 성당

### ❖천호피정의 집 피정

·때 : 4월 4일~6일  
·주제 : 내 삶의 별은?  
·강사 : 박종근 신부

### ❖기억할 사제

·4월 5일,  
이철현(프란치스코) 17주기

### ❖김신태 신부 주소

Rev. John Kim  
Justinusheim Jurastr.3  
CH-1700, Fribourg  
SCHWEIZ  
(T)001(2)-41-26-322-7999

### ❖박종충 신부 주소

Rev. Leo Pak  
Jr. Libertad 1164  
MAGDARENA  
LIMA, PERU  
(T)001(2)-51-1-462-4738(FAX겸용)  
995-2772

### 성소모임

#### ❖성바오로딸 수도회

·때 : 4월 6일(일) 오후 2시  
·장소 : 성바오로서원  
·문의 : (0652) 252 - 3398  
(성소상담은 수시로 함)

#### ❖인보성체 수도회

·때 : 매월 네째주 2시~5시  
·장소 : 중노송동 본원  
·문의 : (0652) 84 - 3231

### ■권해 드립니다■

#### 행복을 위한 선택

최기산/4,800원/바오로딸  
신앙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미래에 완성될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의미와 사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미래적인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저자의 체험과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 전례의 봉사

정의철/6,000원/생활성서사  
하느님 백성인 신자들의 전례 안에서 역활과 중요성을 새전례에 맞추어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미사의 각부분에 담겨 있는 의미들과 주교집전의 대축일 장엄미사 등을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서술하여 교회 전례를 아는데 도움을 준다.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산과 들이 부르는 계절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화사하게 되살아 나는 자연을 찾아 야외로 나가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과 맑은 공기를 주는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마음도 기뻐지는 작은 일들을 실천합시다.

- 차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 도시락, 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 시골들판의 밭이나 논을 가로지르지 말고 길을 찾아 걸읍시다.
- 나무를 심고 계속적으로 보살펴 줍시다.
- 물론 쓰레기를 되가져 오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죠!

### 한국 외방 선교 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 2월 6일 오후2~5시
- 장소 : 부산 부곡동 본원
- 대상 : 수도 성소에 관심이 있는 미혼여성
- 문의 : (051) 514 - 1773

### ‘천호성지’ 사무장 모집

- 1.지원자격:영세한지 5년 이상된 남자로서 컴퓨터 워드 기능자이며 운전면허 소지자
- 2.제출서류:자필이력서(사진부착,연락처명기),세례증명서,자격증사본,본당신부 추천서, 각 1통
- 3.서류접수:전주교구청 사무처 (85-0041)
- 4.기타:면접일자는 개별통보함

### 고려보석

금, 은, 시계(목주반지 제작전문)  
결혼 예물 전문  
김 형 태(올리아노)  
박 태 연(마르타)  
전동성당 사거리 전북은행 앞  
☎ 82 - 9005

### (주)청풍,공기청정기

세계 최초 국제발명품 대회 환경부문 7회 연속금상 수상 • 담배연기,냄새,세균,곰팡이균 등 오염물질 완전분해,쾌적한 생활공간 • 무소음, 무휘터, 음이온(-) 산소발생 공기청정기  
조 흥 기(이빨리나리스)  
이 현 자(세시리아)  
☎ (0652) 251 - 0222

### 015팔달통신·017

전북이동통신 팔달 대리점  
신세기통신 팔달 대리점  
오 현 중(스테파노)  
유 미 숙(마르타)  
전주 오거리 국민은행 옆  
☎ 84 - 0015~6

### 김희민 정형외과

뼈, 관절, 척추, 신경  
최신물리치료기 도입, 입원실  
김 희 민(루가)  
남전주 전화국 앞(구 영광주유소 자리)  
☎ 226-7600~1

#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 무 실 225-0396 주임신부 오 성 기  
F A X 222-4954 수 녀 원 226-3487 사목회장 성 성 택

- ◎ 부활을 새롭게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삽시다!
1. 모임 : ① 구역반장회의-2일(수) 전 10시  
② 사목회 상임위원회-4일(금) 후 8시
  2. 성시간 : 3일(목) 후 7시미사중
  3. 예비신자 모집 : 매주 수요일 저녁반
  4. 그룹 성서모임 : 매주 목요일 전 10시
  5. 축하 : 부활절 영세자를 축하드립니다.
  6. 감사 : 부활절 애쓰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7. 봉헌요망 : 사순절 신앙실천표, 사순절 저금통  
성서통독표, 가정 성서모임 수첩
  8. 나눔과 친교잔치 : 5일(토)~6일(주일) ※ 구역별 협조 바람
  9. 페루 지원 헌금 : 6일(주일)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있음
  10. 전신자 피정 : 26일(토)~27일(주일), 천호 피정의 집
  11. 부속시설 신축헌금 : 금주 납입자 13명, 소계 2,550,000원
  12. 금주 전례 : 해설-문승욱, 독서-김희주(스테파노) 부부  
봉헌-박해근(스테파노) 가정
  13. 차주 전례 : 해설-박종구, 독서-이계현(그레고리오) 부부  
봉헌-이중현(프란치스코)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651,530원 □ 교무금 : 4,211,000원  
□ 2차헌금 : 718,7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 무 실 74-9260 주임신부 오 현 택  
F A X 74-9260 수 녀 원 74-9262 사목회장 유 춘 웅

- ◎ 축하! 예수부활, 알렐루야, 알렐루야!
1. 금주 모임 : 방주회-공식미사 후, 4회의실
  2. 차주 모임 : 요아킴회, 안나회-공식미사 후  
※ 차주-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빈첸시오회미 납부일
  3. 초등부 부활 은총시장 : 5일(토) 후 1시 30분 ~ 후 3시 30분  
※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중·고생 가정방문 : 4월부터 매주 후 2시~5시, 수녀님(교리교사)  
※ 6일(일)-20(동아)구역, 13일(일)-19(현대)구역,  
20일(일)-18(대명, 남양)구역, 15(쌍용)구역
  5. 축하! 혼인 : 오늘 12시 30분, 우리본당  
신랑-조영종의 장남 조환성, 신부-이귀례의 장녀 이숙희(젤마)
  6. 전입가정 환영 : ① 류연창(디모데오) T.74-7944, 동아 A104/604  
② 지순주(세레나) T.251-3803, 현대A 101/102 ③ 노영자(바실라)  
T.74-5048, 현대A 102/1102 ④ 서용국(요셉) T.74-2573,  
현대A 101/902 ⑤ 김순자(효주야네스) T.253-4017, 광진A 105/  
603 ⑥ 장금례(헤레나) T.254-1954, 동아A 107/1002  
⑦ 안생기(가벨) T.72-4785, 8구역 3반  
⑧ 나정애(안젤라) T.254-8629, 동아A 103/1402
  7. 독서 : 금주(새벽)-미사없음, 차주-① 김문태 ② 임순욱  
(공식) ① 박경수 ② 조옥순, 차주-① 오정중 ② 신덕순
  8. 미사 안내 : 금주-하차없으신 모후Pr., 차주-원죄 없으신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1,500,300원 □ 교무금 : 2,817,000원  
□ 2차헌금 : 811,6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 무 실 87-0441 주임신부 현 유 복  
수 녀 원 81-0441 사목회장 이 규 세

- ◎ 알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 본당 이전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 특히 청년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 새 성전 신축위한 묵주기도 봉헌: 소계-5,431단, 누계-353,151단
1. 모임 : ① 사목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② 구역반장모임-다음주 금요일 어머니 미사 후
  2. 봉성체 : 4월 5일(토) 오전 ※ 미리 신청바람
  3. 사순절 동안 살찌운 돼지 저금통 : 다음주일까지 가져오세요
  4. 부활계란 봉헌 : 황금석, 이수자 형제님 ※ 감사합니다.
  5. 금주 전례 : 해설-정희수, 독서-① 황금석 ② 이수자
  6. 차주 전례 : 해설-김미숙, 독서-① 하진호 ② 강정자
  7. 청소 봉사 : 5구역 신촌주택

□ 지난주 봉헌금 : 1,018,350원 □ 교무금 : 980,00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 무 실 221-9842 주임신부 이 성 우  
F A X 221-9842 수 녀 원 225-3675 사목회장 서 동 호

◎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1. 예수부활 대축일 미사 : 전 10시
2. 봉성체 : 3일(목) ※ 사무실에 신청 바람
3. 성시간 : 4일(금) 후 7시 30분
4. 구역미사 : 4일(금)-성원골드, 11일(금)-신일
5. 사목회, 성전신축위원회 : 5일(토) 후 7시 30분
6. 차주 모임 : 구역(반)장 회의 후 야유회-낮미사 후  
※ 페루 선교사를 위한 2차 헌금  
※ 성전신축을 위한 특별헌금이 있음
7. 신축헌금 신입현황 : 268세대-5억8천7백9만 원
8. 교무금 신입현황 : 260세대-1억1백2만7천 원
9. 폐품판매 현황 : 1,481,690원
10. 청소 봉사 : 5일(토)-신비로운 장미Pr.
11. 금주 전례 : 새벽-유희경, 낮-최정순, 저녁-경인자
12. 차주 전례 : 새벽-곽승욱, 낮-이영숙, 저녁-김영중
13. M.B.W 현대복음선교 과정 : 4월 10일(목)~13일(일)  
<주말과정> ※ 사무실에 문의 및 접수 바람
14. 축하! 결혼  
① 4월 5일(토) 전 12시, 전동성당  
신랑-송정우(마르셀리노), 신부-권혜옥(마르셀리나)  
② 4월 6일(일) 후 1시, 전동성당  
신랑-고재명(마티아), 신부-윤영민

□ 지난주 봉헌금 : 879,750원 □ 교무금 : 2,949,000원

**호자동** 주임신부 223-3824 사 무 실 223-3821 주임신부 서 정 현  
보좌신부 223-3823 수 녀 원 223-3822 보좌신부 권 완 성  
F A X 223-3821 사목회장 이 병 선

- ◎ 금주 성서통독 : 에페소서
1. 금주 모임 : ① 사목회-30일(일) 10시 30분미사 후 ② 성체봉사자  
모임-1일(화) 전 11시 ③ 구역봉사자 모임-2일(수) 전 10시 30분  
④ 성모기사회-5일(토) 전 10시
  2. 차주 모임 : ① 선교교위-6일(일) 후 2시
  3. 다음주일 : 페루선교사를 위한 2차헌금
  4. 다음주 미사안내 및 차봉사 : 쌍용주택
  5. 외딴교우 및 냉담자를 위한 기도회 : 매주 목요일 7시미사 후
  6. 외딴교우 가족 초청의 밤 : 4월 18일(금) 후 7시 30분  
※ 많은 관심 바람
  7. 전입교우 환영 : 노궁달(베드로)-한양운남A 3-206 T.227-3279  
김윤식(가브리엘)-황제A 2-103 T.226-2300  
박현석(요셉)-효자동 1가 549 T.222-3974  
유준재(바오로)-쌍용A 104-501 T.227-0540
  8. 발전 헌금 : 이동임(마리아) 오만 ※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548,120원 □ 교무금 : 3,901,000원  
□ 2차헌금 : 625,900원

**호자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 무 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보좌신부 226-0443 수 녀 원 223-0715 보좌신부 강 호 환  
F A X 226-1044 사목회장 김 규 환

- ◎ 알렐루야! 부활을 축하합니다. ◎ 성전 신축을 위한 묵주기도 100단 봉헌, 소계-10,090단, 누계-676,707단
- ◎ 오늘 : 성전신축을 위한 2차헌금 실시
1. 금주 모임 : ① 요셉회-공식미사 후 ② 여성분과회-4일(금) 10시미사 후  
2. 청년연합회 : 4월 6일(일) 저녁미사 후-미혼 남·여 누구나 환영
  3. 제2차 신축헌금 신입자 : 익명2,000만, 배양숙300만, 황인용300만,  
채수연200만, 김두성100만, 김현목100만, 박종원100만, 은정순50만,  
박금자50만, 오영순50만, 양복임50만, 김용봉50만, 익명200만, 서  
완산100만, 이봉자50만, 최승남200만, 이근욱300만, 채의병100만, 황  
경미200만, 이동우100만, 접이룡200만, 변효석300만, 익명500만, 익  
명150만, 송희명50만, 이양금100만, 김대순200만, 이한철300만, 양  
정숙200만, 안동선100만, 유계정250만, 유인영100만, 임희준100만, 김  
순자50만, 문형래100만, 최영철100만, 익명600만, 임정신100만, 김성  
희100만, 김옥남100만, 김희정30만, 김철환100만, 김혜연50만, 소진  
순30만, 서혜란1,000만, 방진태100만, 김용태200만, 김명진50만, 이  
홍재500만, 익명500만, 오영열200만, 김성춘100만, 김태민100만, 박  
채진100만, 박봉래100만, 김점순80만, 양태현50만, 이기남30만, 정금  
순20만, 문귀남10만 ※ 소계 : 1억1천6백5십만원, 누계 : 4억7천9백6만  
원
  4. 차주 : 천주의 모친Cu., 성소후원회 가입과 회비접수, 페루선교사  
를 위한 2차헌금 실시
  5. 금주 전례 : 해설-이한은, 독서-① 이진태 ② 김  
기순, 봉헌 안내-강신호, 임예자 부부
  6. 차주 전례 : 해설-김찬원, 독서-  
① 정진호 ② 김홍숙, 봉헌 안내-유영균, 강선화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878,900원 □ 교무금 : 7,380,000원 □ 2차헌금 : 951,160원